

# 중소 취업 청년, 2년 근속시 900만원 지원

당정,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마련

## 학자금 대출 연장·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계 혜택 육아 휴직 임신기간에도 사용 가능...남성 배우자도 적용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만 2년을 근무하면 최대 900만원을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광립 정책위 부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청년이 만 2년을 채워 근무할 경우, 본인이 2년 동안 총 3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이자 포함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이 형성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직난에 고통받는 청년 취업자, 구인난과 조기 이직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미스 매칭'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대책이다.

일단, 당정은 300억원의 예산을 배정,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1만명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되, 앞으로 지원 대상 청년을 5만 명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육아 휴직과 관

련,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 휴직을 임신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임신부뿐 아니라 남성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김 부의장은 설명했다.

또 취업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가 창조혁신센터, 고용복지센터 등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취업·고용 정보와 중개를 직접 맡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매일 청년채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해 지역의 기업과 구직자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의 인턴지원 제도를 보완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게 되면 2년간 정부지원, 기업지원

을 포함해 '1200만원+알파'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국에 있는 고용복지센터 등 어딜 가든 상담과 훈련,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워크넷을 통해서 정부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보강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외에 취업의 창구로 활용해야겠다는 목표가 세워졌다"며 "오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첫 번째로 청년채용을 위한 기업과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만든다. 이러한 것을 전국 17개 센터에서 1년간 200여 차례 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정부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당에 요청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내달 19일 임시국회 개최 합의

여야 3당 원내 부대표 회의...쟁점법안 조율후 4일 재회동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본회의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만나 이 같은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3당이 내부 의견을 조율해 다음달 4일 다시 만나 타결을 시도한다.

조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풀어야 될 법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 원내수석회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요청하는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법, 관세법, 대학구조조정법 등"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또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와 각 당 정책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자 참석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 원내수석은 "우리당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세월호특별법,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 보장"이라며 "(조사위 활동기간이) 6월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활동기간

보장이 이뤄져야 하고 새누리당이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청년고용활성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고, 그에 대한 입장을 갖고 추후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은 그러나 "사이버테러방지법(19대 임시국회의) 논의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19대 국회를 정쟁으로 끝내자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협상은 어떤 형태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장기간 협상을 해왔는데 (보건 의료 부분을) 법안에서 빼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했다.

유 원내수석은 "어떻게든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처리하는 것이 도리"라며 "여기서 선례를 잘 만들어야 20대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것이다. 최대한 합의를 이루는 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인양 후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조원진 원내수석에게 요구했다"며 "(3당이 쟁점법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5월4일 만나 진행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당정협의 재가동

"정국 주도권 뺏길라" 위기감 새누리, 일자리·안보 연세 회의

새누리당이 4·13 총선 참패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정책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사실상 실종됐던 당정협의를 27일 매머드급으로 재가동한 데 이어 28일에는 북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안보 관련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에서는 원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및 김광립·이명수·이학재·황영철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고용노동부 장관·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매머드급이었다.

여권은 총선 전까지 당정협의를 매주 가졌으나 참패를 거둔 이후 애초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당·정·청 협의회를 취소하는 등 거의 손을 놓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19대 국회의 마지막인 4월 임시국회가 열린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정책 주도권마저 내어줘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고개를 들면서 정책모드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는 28일 오전에는 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안보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방부·외교부·통일부 차관들로부터, 북한이 내달 6일 노동당 당 대회를 앞두고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종인,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민주 "한·일 위안부 합의 수용 불가 입장 불변"

"합의 이행 속도 빨라야" 김종인 발언 논란 해명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과 관련, '합의내용 수용 불가'라는 기존 당론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전날 뱃소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 한 자리에서 "국민감정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는 합의를 했지만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이행 속도가 빨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외무장관이 합의한 위안부 합의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어제 김 대표의 언급은 이른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합의라고 해놓고도 그런 합의내용조차도 일본

내에서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몰역사적 또 부적절한 인식과 자세 전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후 맥락을 보면 김 대표가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부질적인 인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뱃소고 대사가 청소년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를 언급했고, 김 대표가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역사 문제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걸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야 '김영란법 개정' 신중론

"현재 결정 지켜보자"...보완 필요성도 제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한 번 다시 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여야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법리를 따져보고 있는 중임을 상기시키며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27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니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리면 된다"면서 "현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회가 나서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가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선 당의 입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입장이 엇갈렸다.

법조인 출신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내수경기가 위축돼 농수축산 농가 등 서민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에 집착해 헌법 원리에 어긋나고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이 이뤄진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국민 다수가 지지한 법을 시행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치자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 과정에서 예측 못한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 손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입법사항이므로 국회와 국민에게 맡겨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20년 노하우

###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컨설팅 전문업체

#### 지오옥션 경매 컨설팅

20년경력의 부동산 컨설턴트 성실한 상담

- ★ 공장 나주시 오량동 단층 및 2층공장, 대지5,735㎡ 건물3,965㎡ 동수오량농공단지내 ▶ 감평가 34억6천7백, 최저가 15억5천5백 (감평가의45%)
- ★ 공장 화순군 동면 단층 및 2층 미곡공장, 대지6,844㎡ 건물1485.8㎡ 연동마을인근 ▶ 감평가 13억2천만, 최저가 4억7천3백 (감평가의36%)
- ★ 공장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전통식품공장, 대지7940㎡ 건물3502㎡ 단층 및 3층 ▶ 감평가 24억9천4백, 최저가 4억2천
- ★ 공장 광안구 안청동 하남산단내 대지5,940㎡ 건물5872㎡ 단층 및 2층 ▶ 감평가 57억6천8백, 최저가 57억6천8백
- ★ 나주시 경현동 지하1층~지상3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현리유원지부근 ▶ 감평가 30억6천5백, 최저가 8억7천9백 (감평가의29%)

※ 전지역 병원, 사우나 매매, 매입 상담 ※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조여사 010-6211-4585

### 채용 공고

- \* 경매투자에 관심있는분
- \* 부동산 배우면서 일할분
- \* 공인중개사
- \* 열정과 소신이 있는분
- \*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분
- \* 자격증 소지 무관

지금 도전하세요!!

T. 062-714-2251

####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수익성 부동산 다량 보유

- ★ 광안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기업은행뒤 대지 479㎡, ▶매매 5억8천만 (조정가)
- ★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 웰빙건강랜드부근 ▶매매 2억2천만 (조정가) 현 주차장
- ★ 근린시설 남구 주월동 지하1층, 지상8층 대지 3752㎡ 남구청 부근대로변 ▶ 감평가 35억4천4백, 최저가 35억4천4백
- ★ 근린시설 동구 동명동 8층 건물 대지 700㎡ 건물 2005㎡ 왕복 4차선▶ 감평가 19억6천, 최저가 19억6천
- ★ 의료시설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입구, 대지 11,546㎡ 건물 5,733,24㎡ 대로변 ▶ 감평가 48억8천6백, 최저가 48억8천6백

※ 전국 물건 매입 ※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공태풍 010-3820-8151

T. 062-714-2251

NPL채권 전국 물건 상담

이주원 국장 010-7171-7610

권리분석, 수익성 상담

강천구 이사 010-6838-6008